

보충: 병의 위치와 성질이란 무엇인가?

병의 위치라 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나 장애가 발생한 기관·조직을 지칭한다 할 수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병의 위치[病位]라는 개념을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병사(病邪)가 오장 육부에 있다거나 경락에 있다고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실질 장기로서의 간장, 심장이나 경락 노선 자체에 어떤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여러 가지 관념 체계에 의해 장부나 경락 등에 귀속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후자의 의미로 병의 위치[病位]란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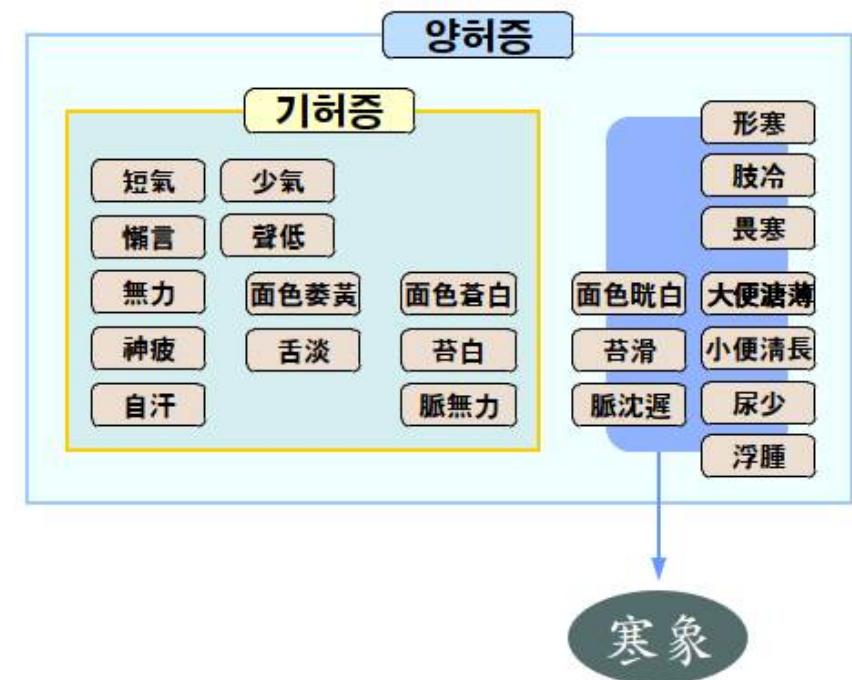
또한 아래 그림에 나타난 기·혈·진액은 병이 존재하는 위치를, 풍·한·습·서·습·조·화는 병의 원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은 고정 요소가 아닌 유동 요소(流動要素)로서, 부위적 편재성이 없는 증상과 연관을 갖는다. 이 책에서는 이들을 모두 병의 성질[病性]을 나타내는 요소로 본다.



가. 기허증과 양허증

기허증과 양허증은 많은 증상을 공유한다. 증상의 강도는 약하더라도 양허증에서 기허증의 모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허증 증상의 집합은 양허증 증상의 집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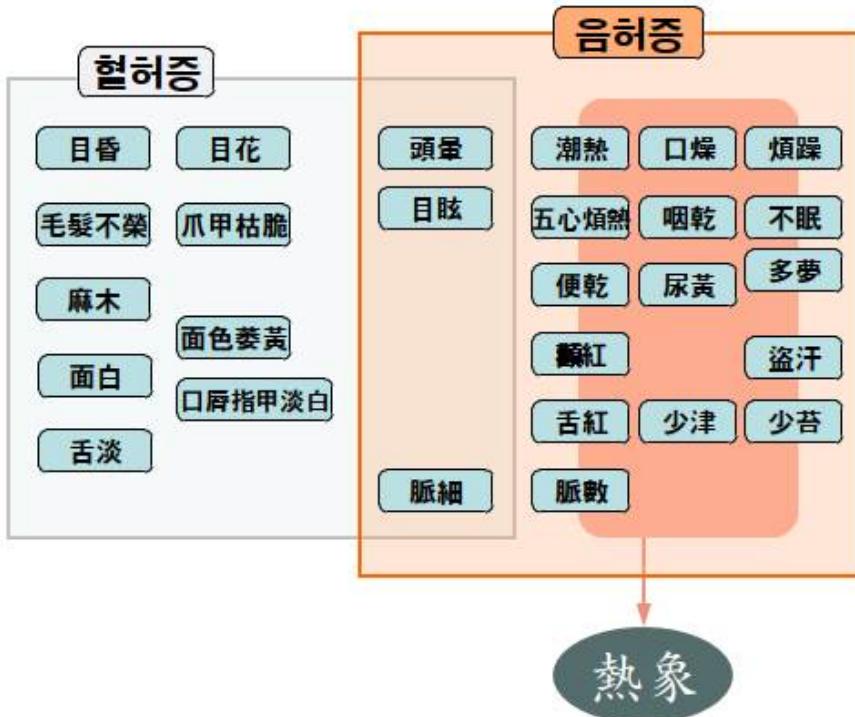
기허증과 양허증의 공통 증상 외에 양허증은 일군의 증상을 더 가지고 있는데, 이 증상들은 모두 '차다[寒]'는 속성을 가진 증상이거나 이와 관련된 병리 기전에 의해派生된 증상들이다. 종종 이들은 '한상(寒象)'이란 말로 표현된다.



나. 혈허증과 음허증

간혹 혈허증과 음허증의 관계가 앞서 살펴본 기허증과 양허증의 관계와 유사한 것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있지만 혈허증과 음허증은 약간의 증상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의 변증표준화안을 분석해 보면 이 둘 사이에 공유되는 증상은 어지러움, 현기증, 그리고 세맥(細脈)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증상에 혈허증과 음허증 각각이 여러 증상을 고유 증상으로서 가지고 있다. 이 중 음허증에만 나타나는 증상들은 '뜨겁다'는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으로서 종종 열상(熱象)을 나타내는 증상이라고 불린다.



1 간의 증상

병위가 간(肝)임을 나타내는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상은 협통과 혼맥(弦脈)이다.

| | | | | | | | |
|------|---------------|------------|--------------|--------------|--------------|------------|-----|
| 주기능 | 간의 소통 | | | 협통 膈痛 | 두통 頭痛 | 소복통 少腹痛 | 痛/悶 |
| | 결석 방변의 過暢 | 쉽게성남 易怒 | 번조 煩躁 | | | | |
| 함장성분 | 肝藏血 | 마목 麻木 | 조감고취 爪甲枯脆 | | | | |
| 지배조직 | 肝主筋 | 구급 拘急 | 추족 抽搐 | 신록거림 筋惕肉瞤 | | | |
| 개규부위 | 肝開竅於目 目(目) | 목삽 兩目乾澀 | 목흔 目昏 | 목화 目花 | 야맹 夜盲(雀目) | | |
| 기타 | 목적 目赤 | | | | | | |
| | 소양경 증후 | 구고 口苦 | 인건 咽乾 | 이명 耳鳴 | | | |
| | 현맥 脈弦 | | | | | | |

2 심의 증상

병위가 심(心)임을 나타내는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상은 '심계(心悸)' 증상이다.



* 원전에서의 의미를 기준으로 할 때, 심장이 혈액을 주관한다는 표현은 심장 박동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현행 한방생리학 교과서의 표현을 중시하여 심박동의 문제를 "심주혈맥"에 귀속하였다. 향후 개정이 있어야 할 내용이다.

3 비의 증상

병위가 비(脾)임을 나타내는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상은 식욕부진과 복창(腹脹), 변당(便溏)의 증상이다.



4 폐의 증상

병위가 폐(肺)임을 나타내는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증상은 기침과 가래이다.

| | | | |
|------|------------|-------------|-------------|
| 주기능 | | 기침(해) 咳 | 기침(수) 嗽 |
| | 호흡의 문제 | 헐떡거림 喘 | |
| 함장성분 | 호흡무력 少氣 | | |
| | 가래 痰 | | |
| 지배조직 | 肺主皮毛 | 한 汗 | 자한 自汗 |
| | | 도한 盜汗 | 땀이 없음 無汗 |
| | 表證 | 오한 急寒 | 발열 發熱 |
| | | 두통 頭痛 | 부액 脈浮 |
| 개규부위 | 肺開竅於鼻 | 콧물 鼻漏 | 鼻煽, 鼻張 등 |
| 기타기능 | 肺主聲音 | 낮은 음성 聲低 | 목 쉼 聲音嘶啞 |
| 통증 | (흉부 증상) | 담낭만 胸脇滿悶 | |

5 신의 증상

병위가 신(腎)임을 나타내는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상은 허리와 무릎이 아프거나 힘이 없는 증상[腰膝痠軟]이다.

| | | | |
|------|--------------|---------------|--------------|
| 주기능 | 유정 遺精 | 조두 早泄 | 양위 陽痿 |
| | 사상·별기 장애 | | |
| 함장성분 | 발육지연 發育遲延 | | |
| | 노화·정후 | 건망 健忘 | 모발의 탈락 髮脫 |
| | 불임 不孕 | | 치아의 동요 齒搖 |
| | (여성 생기 증상) | 월경량감소 經少 | 백대하 白帶 |
| 지배조직 | 腎主水 | 잦은 배뇨 小便頻數 | 유뇨 遺尿 |
| | 개규부위 1 | 오경설사 五更泄瀉 | 음낭수증 陰囊水腫 |
| | 개규부위 2 | 腎開竅於耳 | 이명 耳鳴 |
| | | | 이론 耳聾 |
| 기타기능 | | | |
| 통증 | (허리와 무릎의 증상) | 요술산통 腰膝酸痛 | 요술무력 腰膝無力 |

6 위의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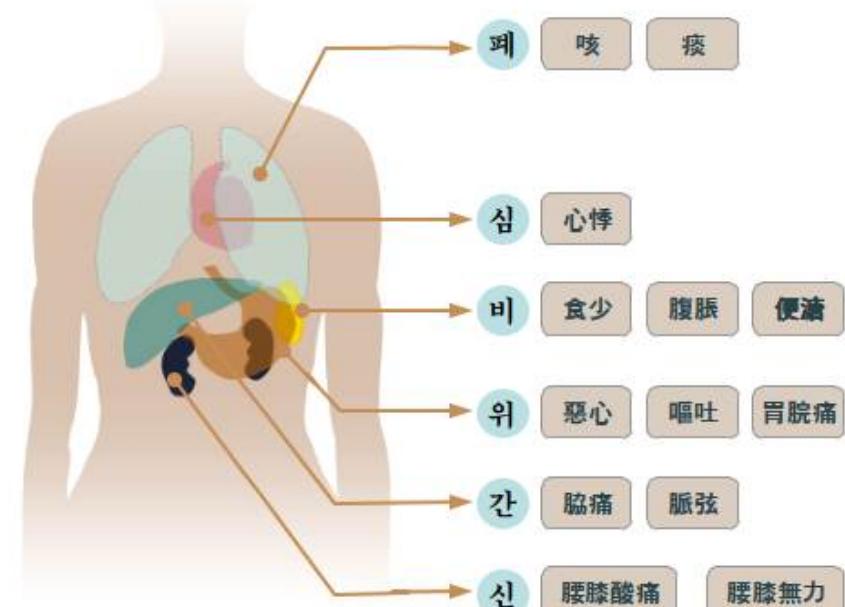
병위가 위(胃)임을 나타내는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상은 오심·구토와 위 부위의 통증(위완통)이다. '조잡(嘈雜)'은 공복감과 유사한 상복부의 은근한 불쾌감이며 '오노(懊憊)'는 주로 심와부(명치)의 주관적인 불쾌감을 말하는데 이들 증상은 그 위치가 불분명 할 때가 많고 심적 요소가 큰 증상이므로 단순히 복부 증상에 귀속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 | |
|----------|----------------------------|---------------|
| 胃主降濁 | 오심 恶心 | 구토 嘔吐 |
| | 딸꾹질 呃逆 | 트림 嗳氣 |
| | 신물 넘어옴 吞酸 | |
| | | |
| (식욕과 소화) | 식욕부진 食少 | 식욕 향진 多食善飢 |
| | 소화불량 (食物)易滯 | |
| | | |
| (입의 증상) | 구취 口臭 | |
| | 치온증통 齒齦腫痛 | 치온출혈 齒齦出血 |
| | | |
| (복부 증상) | 위완통 胃脘痛 | |
| | 상복부 팽만감·불쾌감 胃脘部 脹·滿·痞·悶 | |
| | 조잡 嘈雜 | 오노· 懊憊 |

* 오노(懊憊)의 표준 독음은 "오노"이지만 이 책에서는 "오노"로 표기하였다.

각 장부의 대표적인 병위 지표

이상에 정리한 바와 같이 각 장부별로 많은 증상들이 병위의 판단 단서로서 관련을 맺고 있지만 그中最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I. 간의 증

肝

간은 양(陽)의 장부로서 음·혈의 부족이 생기기 쉽고 화열이 잘 발생하는 장부이므로 간음허증, 간혈허증, 간양상항증, 간화상염증이 간의 증으로서 흔히 나타난다. 한편 간의 기는 전신에 잘 뻗어나가야 [條達]하는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간기울결증이 나타난다. 간기의 유통은 종종 간양상항증, 간화상염증이라는 화열의 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간풍내동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밖에 간에 소속되는 증으로 간경습열증과 한체간맥증이 있다. 간풍내동증에는 간의 화열로 야기되는 간양화풍증 외에 열극생풍증, 혈허생풍증이 포함된다.



* 간양상항증은 완전한 실열증은 아님. 이는 바 본허표실(本虛標實)의 특성을 갖는 증.

II. 심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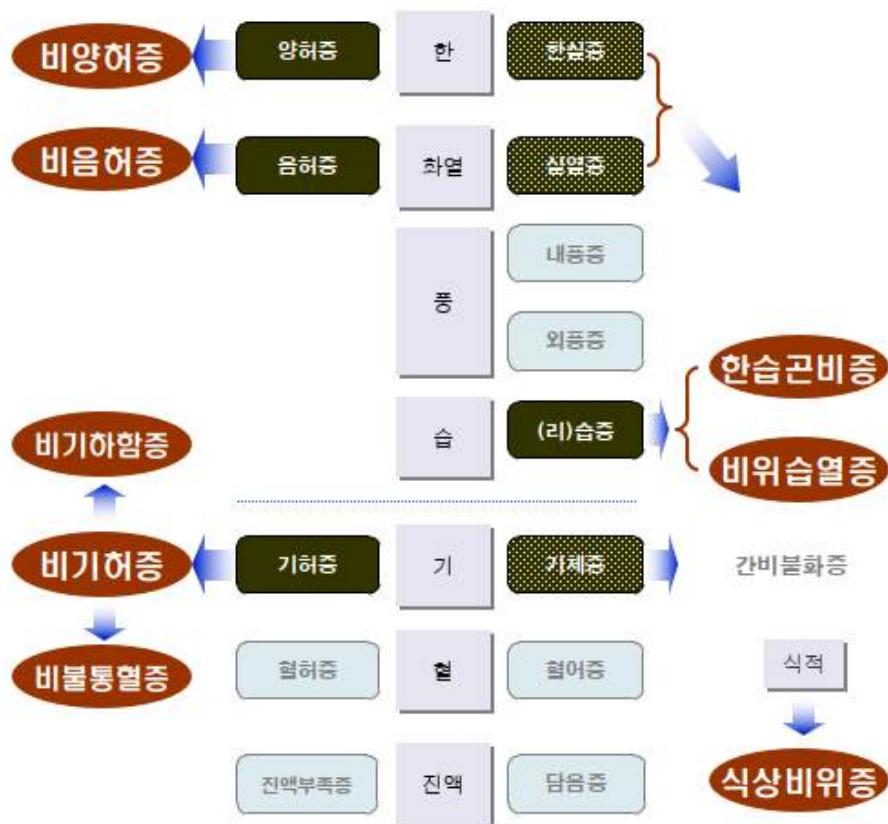
心

기허, 혈허, 음허, 양허의 4대허증은 모두 심과 관련된 하위증을 가지고 있다. 심과 관련된 실증은 화열의 증과 어혈, 담음의 증이 있다. 또한 이습증과 관련된 증도 나타난다. 수기능심증(水氣凌心證)이 그것이다.



III. 비의 증

비의 허증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혈허증을 제외하고 기허, 양허, 음허의 증이 존재하며 기허증의 심화된 형태인 비기하함증과 비의 통혈(統血) 장애를 보여주는 비불통혈증도 병위가 비인 허증들이다. 단 비음허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으며 비기허증과 비불통혈증의 충차 관계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점이 있다. 비의 실증으로는 습에 의한 증들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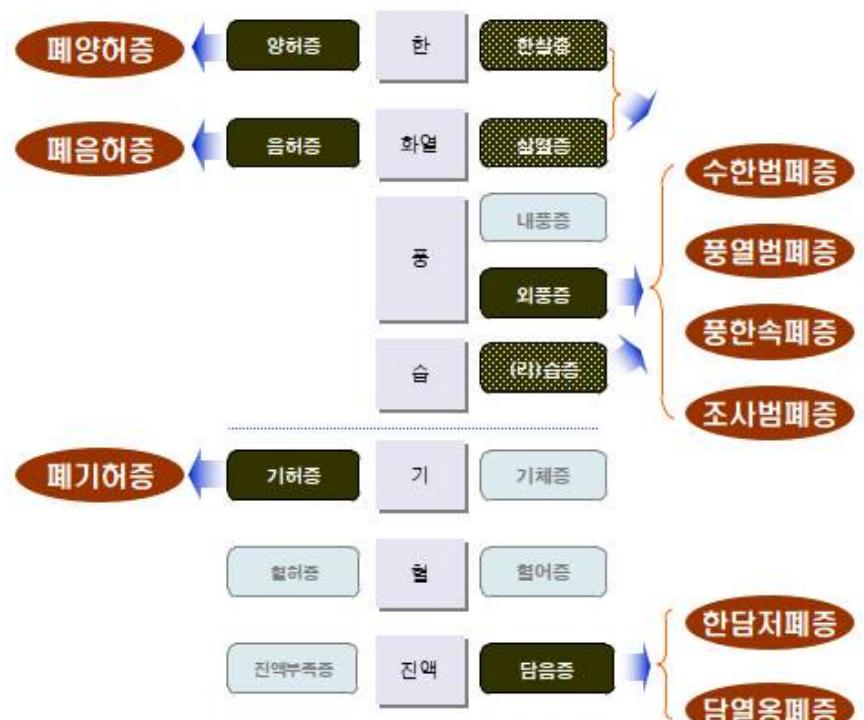


IV. 폐의 증

폐의 허증으로는 폐기허, 폐양허증과 폐음허증이 있다. 비, 신과 마찬가지로 혈허증은 나타나지 않는다.

폐의 실증은 한, 열, 조, 습의 성질을 갖는 4종의 표증(이들이 바로 '외풍증'이다)과 각각 한, 열의 특성을 나타내는 2종의 이증(裏證)으로 구성된다. 후자는 담증(痰證)의 일부를 이루어야 하나, 담증으로서는 불완전한 증상 구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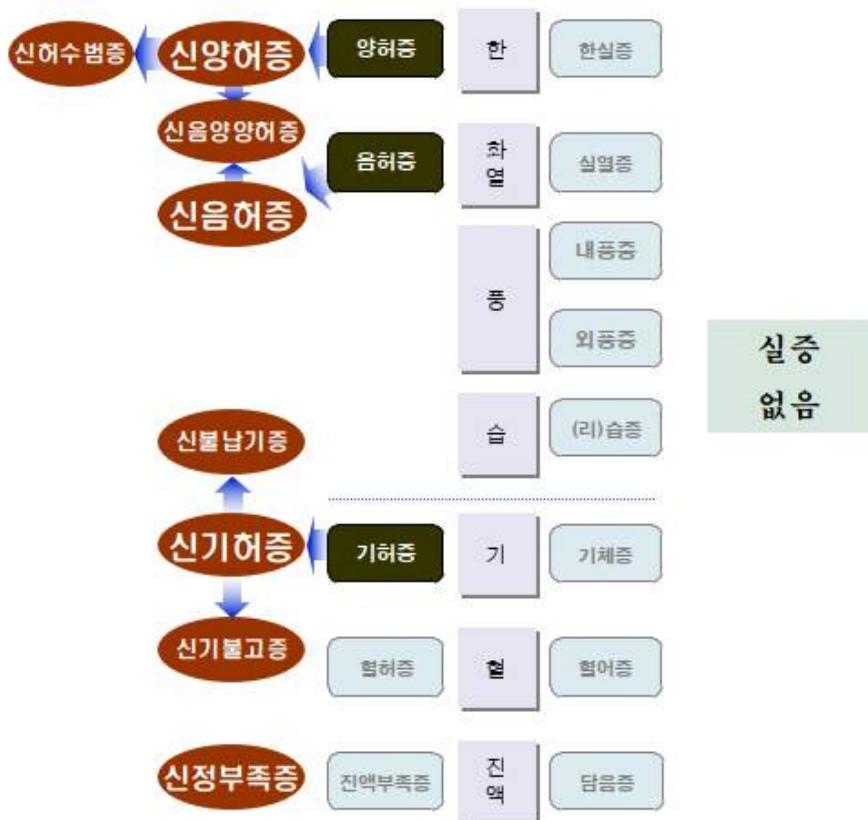
폐의 실증에는 공통적으로 기침, 가래, 천식과 가슴의 통증이나 답답함이 나타난다.



V. 신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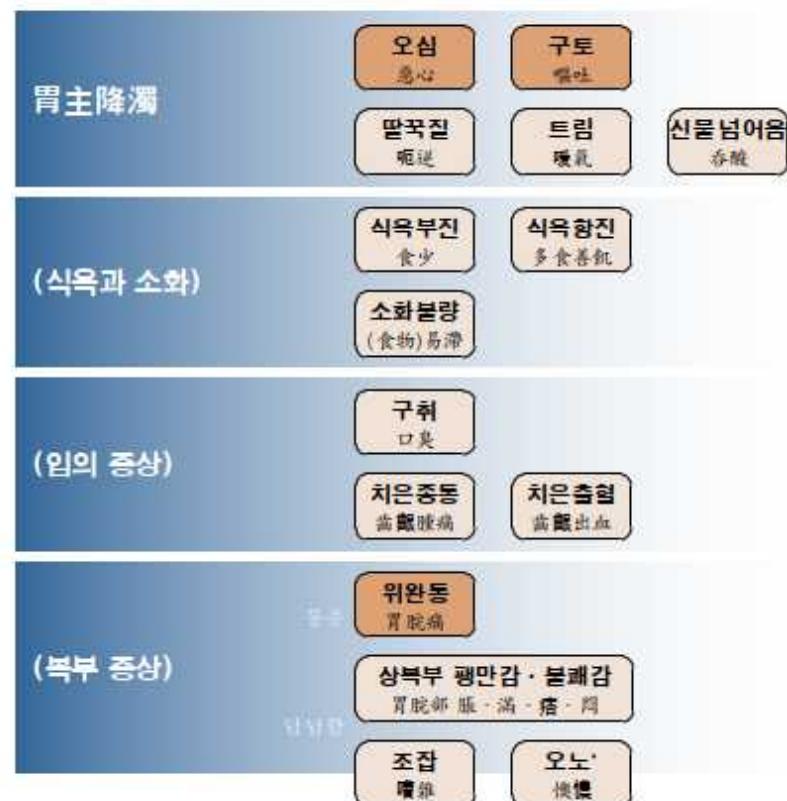
胃

신(胃)의 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신과 관련된 실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의 허증으로는 신기허증, 신양허증, 신음허증이 있으며 신의 장정(藏精) 기능과 관련하여 신정부족증이 존재한다. 신불납기증은 신과 폐의 상겸증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장부 상겸증 단원에 수록하였다.



6 위의 증상

병위가 위(胃)임을 나타내는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상은 오심·구토와 위 부위의 통증(위완통)이다. '조잡(嘯雜)'은 공복감과 유사한 상복부의 은근한 불쾌감이며 '오노(懊憊)'는 주로 심와부(명치)의 주관적인 불쾌감을 말하는데 이들 증상은 그 위치가 불분명할 때가 많고 심적 요소가 큰 증상이므로 단순히 복부 증상에 귀속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오노(懊憊)의 표준 독음은 "오뇌"이지만 이 책에서는 "오노"로 표기하였다.

VI. 장부의 상겸증(相兼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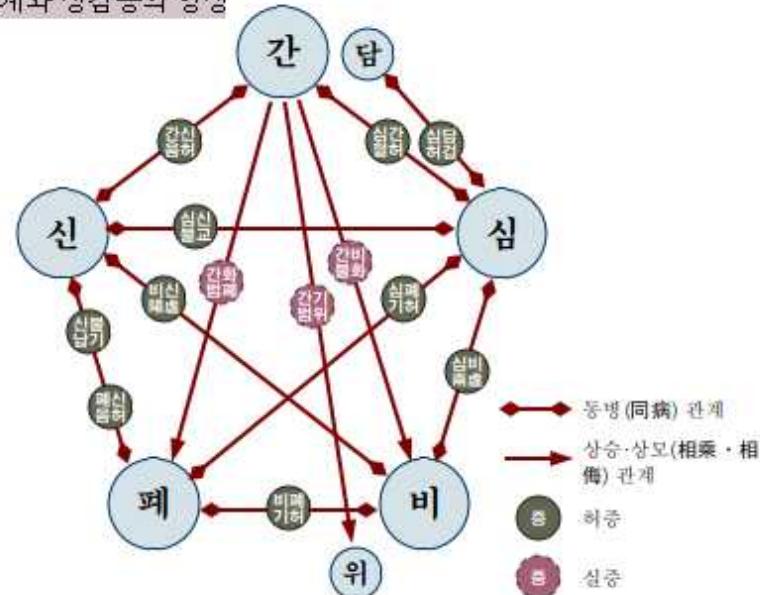
兼病

어떤 환자에게서 하나의 증(證)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둘 이상의 증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증의 상겸(相兼)이라 하는데 장부변증에서의 중요한 상겸증은 보통 별도의 증으로 취급한다. 표준안을 중심으로 이들 주요 상겸증을 소개한다.

장부상겸증의 병성별 분류

| | | | | |
|-----|------|------|-------------|------|
| 기허류 | 상폐기허 | 비폐기허 | 신불납기 | 심단히침 |
| 양허류 | 비신양허 | | | |
| 혈허류 | 심간혈허 | 심비兩虛 | 기혈 양허 | |
| 음허류 | 간신음허 | 폐신음허 | 심신불교 | |
| 실열류 | 간화병폐 | | | |
| 기체류 | 간비불화 | 간기범위 | | |

장부간 관계와 상겸증의 형성



증의 증차 관계

이상에서 언급한 각종 증들 사이에는 증차(層次) 관계가 존재한다. 아래에 그 일부의 예로서 4대허증 계열 증들의 증차 관계를 정리한다.

기허 계열 증의 증차



양허 계열 증의 증차



혈허 계열 증의 증차



음허 계열 증의 증차



동의M스쿨